

LG실트론 회사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주)LG실트론은 1985년부터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여 국내외 반도체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단결정 성장(crystal growing)에서부터 웨이퍼 가공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으며, 강도 높은 혁신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켜, 현재 100, 125, 150, 200, 300mm의 전 구경에 걸친 폴리시드 및 에피택시얼 웨이퍼(Polished & Epitaxial wafer)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LG실트론 최고경영자로서 경영철학에 관해 말씀 해주십시오

첫째, “백식(百識)이 불여일행(不如一行)”입니다.

실트론은 지식 공유를 통해 전 사원이 본인의 직무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학교를 통하여 직접 자신이 현장과 개선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 못지않게 행동으로의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기업은 그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No라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대안을 제시 하자”입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한다면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항상 도전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실천으로 매사에 일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업무 처리를 해내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향의 대안을 갖자는 말을 하곤 합니다.

세제, “조직은 혼자가 아니라 팀 플레이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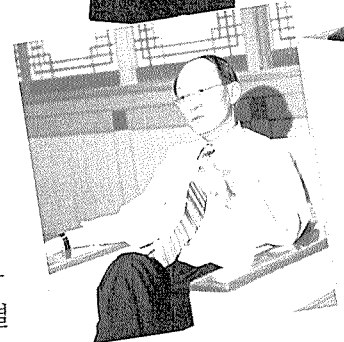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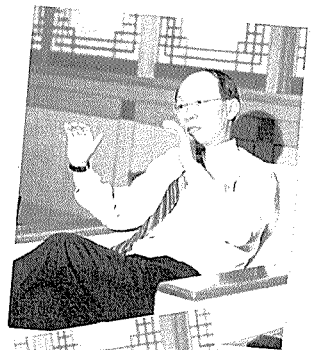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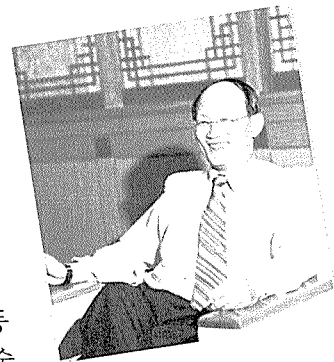
회사는 다양한 업무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팀 단위부터 크게는 그룹 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이 서로가 자신의 일을 다른 동료들과 연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팀 전체, 나아가서는 회사 전체를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남을 배려하며 서로가 협력해야만 합니다. 이런 팀 플레이를 위해서는 상호간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PM 및 6시그마 활동, 메인テナンス 활동을 소개 해주십시오

올해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첫 해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선정하여 각 부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원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TDR 팀을 구성하여 혁신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진행 중인 모든 과제들은 6σ process 를 적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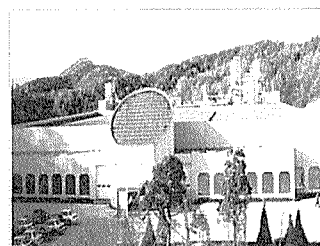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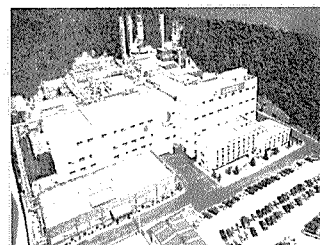
폴도로 하여 문제 해결 Tool로서 이미 자리 잡은 6σ 를 더욱 강화하여 그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실트론의 현장 혁신 활동은 코벨소 혁신 학교를 통한 사원 혁신 의식의 고취와 함께 3My 운동 (TPM), 자주 개선반, 기술 교육센터(보전 학교) 등을 통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My운동은 기존의 TPM 자주 보전 7Step을 My Area, My Machine, My Job으로 구분한 것으로 현장 정리 정돈 및 개별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개선반'은 각 공장 별로 현장의 우수 직원들을 선발하여 현장에서 발견되는 불합리 사항들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2,300여건의 문제발견과 2,100여건의 자체 해결



UG 실트론

- 2007년 01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1월 2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2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2월 2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3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3월 2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4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4월 2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5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5월 2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6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6월 2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7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7월 2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8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8월 2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9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09월 2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10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10월 2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11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11월 2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12월 1차 사업비 집행
- 2007년 12월 2차 사업비 집행





박영웅

LG 실트론 대표이사 사장

1947년 9월 15일 생, 부산 대학교 기계 공학과 졸업

학력

- 1973년 10월 LG전자 입사
- 1988년 03월 LG전자 모니터 OBU장
- 1994년 01월 LG전자 MGT / 전자 총 OBU장
- 1995년 01월 LG전자 전자관 OBU장
- 1996년 01월 LG전자 모니터 OBU장
- 1999년 01월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장(LGEDI)
- 2001년 07월 LG.Philips Displays 중국지역본부장
- 2002년 04월 LG.Philips Displays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장
- 2003년 01월 LG.Philips Displays Industrial Improvement Director
- 2004년 01월 LG실트론 대표이사 사장

을 하는 등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월 오픈한 '실트론 기술교육센터'는 기존의 보전학교 개념으로서 현장 사원들의 설비 운전 기능 향상을 통해 강한 현장 사원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활동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사는 1998년 55억원의 연료 및 전기의 절감을 기록한 이후 매년 60~70억 이상의 에너지 절감 실적을 보이며 현재까지 약 35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에너지 부문의 기업 시상에서 철탑 산업 훈장을 비롯 하여 워너상, 2003년 대한민국보전경영대상(에너지 혁신 부문)을 수상하는 등 에너지 절감 부문의 모범 기업입니다.

특히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에너지 관련 제안 건수는 2001년 3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3,226건으로 놀랄 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으로 불릴 만큼 제조 원가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10%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6%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으나, 4% 수준을 목표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현장 경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언제든지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즉 스피드와 문제의 핵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혁신적인 개선의 마인드를 가지고,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제조업의 중심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의 개선점을 빠르게 알아내지 못한다면 경쟁 업체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LG실트론의 비전 및 경영목표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이념 아래 "초우량 전자소재 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 서비스로 "블루오션 경영"을 실현하여 글로벌톱3의 진입이 우리의 사업목표입니다.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 "Core Technology, Cost



Leadership, Quality Leadership”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고객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LG실트론의 공유가치는 “Customer First, Innovation, Speed, Teamwork”입니다.

권장하는 도서는 무엇인지요.

“한비자”를 꼭고 싶습니다.

한비는 전국시대 한나라의 공자였습니다.

한비 사상의 요체는 법(法), 술(術), 세(勢)입니다.

'법'은 만인이 준수해야 할 원칙, '술'은 인간을 조종하는 술책, '세'는 법과 술을 발휘하는 배타적이고 유일한 권한을 뜻합니다. 이 책에서는 각양각색의 이익이 상충하는 인간 사회에서 군주가 신하와 백성을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군주와 신하의 이익은 상충하기 마련이므로,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따라오게 잘 부려야 합니다. 여기에 '술'이 필요합니다. 신하의 심리를 잘 조종해야만 천하는 군주를 위해 잘 다스려지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으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이것을 지키며 상하 관계의 원만함을 유지해 나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 책을 권합니다.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와 설명, 그리고 좌우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끝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준 고 정주영 명예 회장입

니다. 보통의 재벌은 엄청난 재산과 규모 있는 기업을 물려 받기 마련인데, 정회장은 혼자서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일궈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맨손의 신화”라고 할까요?

다른 CEO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회사를 순시합니다. 작업 잠바 차림에 안전모를 눌러 쓴 정 회장은 자신을 “부유한 노동자”로 비유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그런 모습은 겉손도 가식도 아닌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로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이끈 선배로써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항상 사원들을 격려하고, 그 자신 또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한 일들에 용기있게 도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꿈같은 일들을 현실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에게서 그런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자” 이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냉정을 잃지 않고,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것입니다. 스스로 신념을 갖고 의지 있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술한 유혹에 접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고민하며, 제 자신을 다스리곤 합니다. 정도 경영의 취지 아래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에 관해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패기를 갖고 발휘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쏟아 열 정적으로 일해보자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물론 훌륭할 것이며, 후회 없는 인생을 보냈노 라고 훗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미쳐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의 손을 들어줍니다.